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4 성산 징계장터' 행사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7일 성산 도시재생사업의 지역 특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2024 성산 징계장터' 행사를 김제 관아 앞 광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냄새를 골러온 2024 징계장터x정계농특산물지거래장터'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가을을 맞아 살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장터로 김제 5일장과 함께 구성했다.

행사는 성산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전통시장상인회,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청년몰 이리락으로 구성된 '징계장터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6월부터 논의를 거쳐 장터를 준비했다.

특히 김제 농업인, 소상공인들이 농산물, 농공지, 차, 즙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성산 도시재생 주민들이 참여하는 봉송이벤트, 조개잡질공예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포토존과 함께 버스킹,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됐으며, 도시재생홍보부스, 한국체험 등에 참여하면 다양한 상품도 받을 수 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가족센터 어울림 장터'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7일 요촌근린공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족센터 어울림장터'를 개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가족센터(센터장 장덕상) 주관으로 6개국(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의 다문화가족 음식 판매, 물품 부스운영, 플라마켓, 아나바다장터, 키타리아저씨&풍선아트 이벤트 등 14개 부스가 마련 운영됐다.

특히 어울림장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사회적 기업인 베이커리 이음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말로 만든 파운드케이크·쿠기세트 등을 선보였고, 그밖에 해내리물티슈 등도 지역상품으로 구성,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지역상품 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한자리에'

완주군, 수소전문가 간담회 개최... 9개 기관·3개 대학·7개 기업 등 참석해 다양한 의견 교류

대한민국 수소산업 전문가들이 완주군에 모두 모였다.

9일 완주군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수소전문가 간담회를 완주경제센터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방안 회의에 이어 완주군이 추진 중인 수소사업 완성도 제고와 향후 수소위원회 설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 국내 수소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한국수소연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TR,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 정부 출연 기관과 도내 소재 대학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일진하이솔루스 등 완주군에 소재하는 많은 기업이 참여해 정부의 수소사업 동향과 기업의 규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영택 한국수소연합 실장과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김범수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팀장은 "완주군이 추진 중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수소사업 육성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과 수소전문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9일 완주경제센터에서 개최된 '수소전문가 간담회'.

조언했다.

또한, 정영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국가산업 내 수전해를 통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계획 수립, 김은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은 LS웰트론 같은 농기계 기업과 수소 농기계 등 지능형 친환경 농기계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공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센터장은 신규 선정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재사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흥연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수소산업과 이차전지의 연계성에 대해 언급하며 각 연구기관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제안했다.

배석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센터장과 송길목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원장은 수소용품 법정검사 운영현황과 ESS 산업의 시장 동향과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어 전북대 이종희 교수와 유동진

교수, 심종표 군산대 교수는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소재 수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는 운영길 일진하이솔루스 전무와 김기범 플라텍 읍니업 이사는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전재홍 AES Tech 대표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 심규정 BTE 대표는 완주에서 터 잡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전희권 비나에프씨엠 대표는 연료전지 소재부품·시스템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완주군수는 "기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제안해 주신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검토해 명실공히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청년친화헌정대상서 '정책대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정책참여 활성화 정책 등 높이 평가

완주군이 지난 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정책대상'에 선정됐다.

올해 7회째를 맞고 있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무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해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공로를 표창하고 있다.

완주군은 민선8기 군정 5대 중점과제인 '활력 넘치는 청년완주'를 실현하고자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 청년 지역정착 지원, 청년 친화적 정책참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 JUMP-UP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거점공간 운영, 청년정책이

장단 운영, 청년정책 활동포인트 지원, 청년축제 지원, 청년참여예산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셰어하우스 운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차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추진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수상은 완주군이 그동안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펼친 다양한 정책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더욱 활력 넘치는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 7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9만 9,023명으로 이중 청년층(18~45세)은 2만 9,667명에 달한다. 올해만 451명이 늘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6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완주군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완주군의회, 완주군 건축사협회와 간담회

김재천 부의장 '현장중심 원스톱 건축허가 처리 위한 TF 구성해야'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6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완주군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한순철 건축과장, 오성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성 건축허가팀장, 정경도 개발행위팀장 그리고 완주군건축사협회 김선희 회장 및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방안, 건축 관련 업무 협조사항 등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건축사협회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실무와 협의부서간의 소통 미비로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건축주의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방안 마련이 제기 되고 있는 상

황으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축사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미준수 △건축허가부서와 협의부서 간의 소통 부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미숙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 요구 등 현안민원을 제기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완주군 발전성 측면에서 신속한 건축허가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민원인 전화 독촉, 대면 접촉 등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신속허가 시스템 도입 및 현장중심 원스톱 건축허가 처리를 위한 건축부서와 협의부서 간 TF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제2회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성료

'자원순환, 깨끗한 지구를 향한 여정' 주제로 80여개 프로그램 진행 '호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6일과 7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제2회 자원순환 새로보미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원순환, 깨끗한 지구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새로·보미·노리 3개 ZONE에서 80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도전 그린벨 자원순환 퀴즈대회,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 대회, 친환경 버블매직쇼, 청소년 동아리공연, 각종 60초 챌린지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회 및 공연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특히 현수막 대신에 철판 사용, 버려

지기 일수였던 홍보물 대신에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매체 사용, 1회용 용기 대신 다화용기 사용, 팔레트를 활용한 전시물 제작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축제의 모델답게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다양한 시도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쓰레기 없는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전북도민체전에서 김제지평선축제 홍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6일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막식이 개최된 순창 공설운동장을 찾아가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체육대회 참가선수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김제지평선축제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이번 축제 개최계획과 주요 프로그램을 안

내하는 등 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힘썼다.

시 관계자는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온·오프라인을 병행,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축제를 찾아 주신 분들이 가지각색의 프로그램을 통해 낮부터 밤까지 온종

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지평선의 꿈! 세계를 날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